

- 「1968년 청와대 기습 김신조 사건 이후」 -

감춰진 북악산, 52년만에 전면 개방

-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, 청와대 방호 목적을 위해 일반인의 접근이 부분 통제된 북악산 지역을 52년만에 전면 개방 추진
- 자연환경 복원으로 북악산의 원형 및 역사성을 회복하고, 군수색로 활용 및 탐방로 개설로 북악산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계기 마련

I

추진배경

- 청와대를 감싸는 북악산은 김신조 사건 이후 청와대 방호 목적으로 52년간 민간인 통제
- 북악산 전면 개방 추진을 위한 「소통하는 대통령 국정과제」 협력
- 기 추진 중인 북악산 지역 환경개선사업 정비구간과 연계, **도성 내측으로 정비구간을 확대**하여 도성탐방 여건 개선 및 개방의 효과 극대화

II

추진경위

- '19. 8. : 북악산 전면 개방 '소통하는 대통령' 국정과제 시달
- '19. 9. :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(청와대, 군부대, 종로구 등)
- '20. 1. : 문화재현상변경 허가(명승 제67호 북악산)
- '20. 2. ~ 4. : 철조망, 군병커 등 지장시설 철거
- '20. 3. ~ 9. : 북악산 한양도성 북측면 개방구간 정비(1단계)

※ 2020.10.31. 대통령, 구청장 참석 개방행사 개최

III 사업개요

- 위 치 : 삼청동 산2-1 북악산 폐쇄구간
- 규 모 : 개방면적 약 110만 m^2 , 탐방로 4.78 km
- 사업기간 : 2019. 8. ~ 2022. 3.
- 사업내용 : 군수색로 탐방로 조성, 자연복원 등 확대 개방

구 분	1단계 구간	2단계 구간	비 고
위 치	북악산 한양도성 북측면	북악산 한양도성 남측면	
사 업 비	20억원	37.8억원	
규 모	개방면적 54만 m^2 , 1.78 km 탐방로 조성	개방면적 56만 m^2 , 3.0 km 탐방로 조성	

IV 정비계획

○ 중점 추진사항

- 북악산 개방에 따른 청와대 방호공백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
- 기존 군부대 수색로·군시설 활용으로 자연훼손 최소화, 역사의 교육자료 활용
- 인체 기준 및 자연지형에 적합한 계단폭·높이 조정으로 누구나 이용가능한 탐방 노선 구축

○ 북악산 단계별 개방



구 분	개방구간
—	'20년 개방
—	'21년 개방

V

추진실적 및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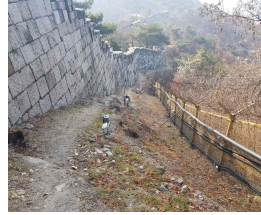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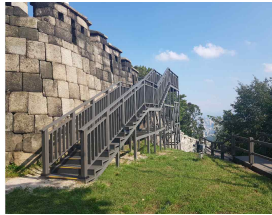
성벽을 넘는 역사 십리길, 문화와 이야기가 있는 북악산 개방 탐방로 조성

⇒ 통제됐던 북악산 숲속길을 통해 한양도성 백악구간 진입 가능, 탐방여건 개선

- 북악산 옛길 탐방로 조성 : 4.78km(십리길) → **자연훼손 최소화**
 - 1단계 한양도성 북측면 1.78km 조성완료, 2단계 한양도성 남측면 3.0km(설계중)
- 성벽을 넘는 한양도성 내·외부 연결, 군 철조망 철거 후 도성 탐방길 조성



성벽을 넘는 한양도성 내·외부 연결



군 철조망 철거 후 도성 탐방길 조성



- 군주둔시설 폐쇄구간 개방을 통해 북악스카이웨이와 한양도성 순성길 연계



군 수색로를 활용 탐방로 개설



북악스카이웨이와 한양도성 연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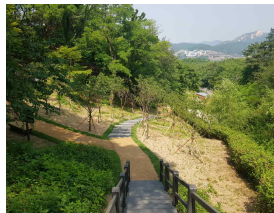
군 부대 주둔으로 훼손된 북악산 원형 복원 및 과거 흔적 스토리텔링

⇒ 불필요한 경계초소와 유희시설을 과감히 없애고 북악산 원형에 가깝게 자연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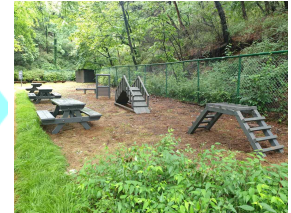
- 군 부대 방어 경계초소 및 콘크리트 계단 후 녹지로 복원
 - 콘크리트 계단, 석축 등 약 100톤 폐기물 철거, 수목식재 등 자연복원
- 군견 훈련장 철거 후 휴게공간 조성 및 스토리텔링(역사교육장)



군시설 철거 후 녹지 복원



군견훈련장 철거 후 휴게공간 조성 및 스토리텔링



군 초소(시설)을 활용, 주민편의공간 조성

▷ 통제구간 내 활용 가능한 군시설을 스토리텔링 및 기억의 장소로 활용

- 군 초소, 철조망 등 일부 활용가능한 군시설은 정비 후 편의공간 활용
- 과거 유류저장시설 터를 안내소,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 → **시민편의 극대화**
 - 탐방안내소 2개소, 친환경 무방류 화장실 2개소, 주차장 조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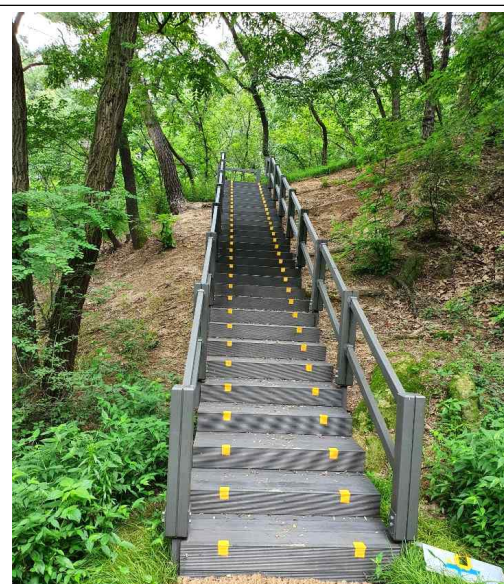
탐방로 주변 군시설을 휴게쉼터로 활용



유류저장시설 주변 안내소, 주차장으로 편의제공

인체 기준 및 자연지형에 적합한 계단폭·높이 기준 마련

- 기존 이용객의 편의를 무시한 계단폭·높이 기준을 과감히 변경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도록 탐방노선 구축
 - 기 준 : 계단폭 300~350mm, 계단높이 150~200mm
 - 변 경 : 계단폭 350~450mm, 계단높이 150~170mm
- 계단 경계부 시안성 확보 및 자연경관 고려를 위한 목재데크 경계부 표시



시안성 및 미관 고려, 목재경계 표시

계단폭 350~450mm

계단높이 150~170mm

인체 기준 및 자연지형에 적합한 계단폭·높이 기준 마련

VI

기대효과

- 문화재 북악산의 감춰진 모습(법흥사터, 만세동방 등)을 개방함으로써 국민에게 북악산 전체 환원 계기
- 여의도 5배 도심공원 확보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정서 향상

VII

기타사항

- 2020.10.31. 대통령참석 개방행사 개최



2020.10.31. 대통령참석 개방행사 개최



2020.11.01. 이후 북악산 개방



과거의 흔적을 살려두어 역사 교육장으로 조성



북악산 탐방로 조성

- YTN, MBC, 한겨레, 매일경제 등 15개 주요 언론사 우수사례 보도

